

# “타격·수비 부끄러웠다... ‘초심’으로 매년 발전하겠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끈 KIA 안방마님 김민식이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해 타격·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김민식은 손바닥이 부르터 붕대를 칭칭 감고 방망이를 잡을 정도지만 “오길 잘했다”며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온천 회복 훈련 마다하고 신에 우주 마무리캠프 자처 한국시리즈 5차전 7-0 때 코치에 “교체말라” 부탁 “이 연차에 우승 포수...KIA 안왔으면 어쩔뻔 했어요”

## 자가발전 중인 포수 김민식

‘우승 포수’ 김민식의 ‘자아발전 캠프’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치르고 있다. 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예 선수 위주로 꾸린 이번 캠프에는 의외의 선수가 포함됐다. 올 시즌 KIA의 안방마님으로 우승의 동력이 된 김민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 시즌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함께했고, 대부분 90년대 선수들로 구성된 캠프에서도 포수 백용환, 내야수 최정민, 투수 김중훈과 함께 1989년생 최고참이다.

다른 우승 멤버들이 온천 회복 훈련과 자율 훈련 등을 하면서 시즌을 느긋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김민식은 내년 시즌을 위해 집을 꾸러 오키나와로 건너왔다. 휴식 대신 훈련을 하면서 기분 좋았던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더 발전한 내년을 만들겠다는 게 김민식의 각오다.

김민식의 열정에 박흥식 1군 타격 코치도 지난 12일 오키나와로 건너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손바닥이 부르터 붕대를 칭칭 감고 방망이를 잡을 정도지만 김민식은 “오길 잘했다”면서 밝은 표정이다.

김민식은 “타격이 부끄러웠다.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많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 그냥 내가 못 친 것이다”며 캠프를 자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초심’으로 매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욕심도 김민식을 오키나와로 이끌었다.



김민식은 “(SK에서 치른) 지난 마무리 캠프 때는 올해보다 더 많이 나가자는 목표였다. 작년엔 88경기 나갔는데 그것도 (이)재원이 형이 다치면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운이 좋았다. 그것보다는 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 올 시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KIA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을 한다.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도 우승 못 해보고 은퇴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연차에

내가 우승 포수가 됐다”고 말했다.

또 “큰 부상 없이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올해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다. 포일이나 이런 부분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다. 전반기 좋다가 후반기 때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기록 심한 것도 싫고 싫다”며 “일단 수비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줄이겠다. 타격에서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캠프의 성과를 밝혔다.

김민식의 시선은 내년으로 가 있지만 ‘우승’은 여전히 감동적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우승 초보’의 실수도 있었다.

그는 “공 패대기처럼 거렁 우승 영상 많이 봤다(웃음). 우승하면 공을 찡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끝나는 순간 멍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며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다. 포수 교체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7-0까지 벌어졌을 때 박흥식 코치님한테 저 바꾸지 말라고, 대타 쓰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다(웃음). 마지막 공을 쫓아가는 데 나도 불안했다. 쉬운 플라이인데 올 시즌 수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파울 플라이였다. 높이 뜬 것까지는 없는데 공이 함참 있다 내려온 거분이었다. 영상을 보니까 공을 잡으면서 내가 ‘오’하고 있더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올 시즌 가장 극적이었던 장면을 돌아봤다.

트레이드를 통해 KIA의 ‘복덩이’가 된 김민식. 우승의 영광 재현을 위한 그의 2018시즌은 이미 시작됐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 예비역 문경찬 “군대선 맘이 힘들고 캠프선 몸이 힘들다”

### 오키나와 캠프 특색

▲민식이냐? = ‘분위기 메이커’ 김상훈 배터리 코치다. 21일 KIA 마무리 캠프의 타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사람들의 갑탄사가 터졌다. 배팅 게이지에 있던 누군가가 멀리 외야로 공을 넘긴 것이다. 김 코치는 배팅 게이지를 향해 “민식이냐?”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훈련 주인공은 김민식과 함께 훈련하던 고졸 1년 차 김석환이었다. 김석환은 앞서 진행된 라이브 훈련에서는 이대진 코치의 공을 받아 답장을 넘기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째어? = 오랜 시간 야구를 지켜본 코치들에게도 낯선 장면. 우승이 확정된 뒤 포수가 투수에게 안기는 장면이었다. 우승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홍세완 코치가 김민식에게 “째어? (양)홍중이랑 둘이 째 줄 알았다. 포수들이 투수를 안지 않냐?”면서 웃었다. 김민식의 대답은 “투수가 안지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였다. 김민식은 또 “경기 전에 (임)장용 선배가 내가 던지면 나를 안아주라고 하시더라. (김)세현이 형도 안아주냐고 했는데 형은 못 안아준다고 했다”고 답을 해 사람들을 웃겼다.

▲첫승 공은 저에게 있어요 =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다. KIA의 2017시즌을 마무리한 우승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인행이 “첫 승 공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지난 3월 3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 KIA 우승 행진의 시작점이었다. 이날 헛타를 앞세운 KIA는 7-2 승리

를 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었다. 이인행은 9회말 수비 때 김주찬의 1루수 대수비로 들어가 이원석의 유격수 땅볼을 처리하면서 마지막 공을 받았다. KIA 통합우승의 시작점이 된 의미 있는 공이다.

▲거기는 마음이 여기는 몸이 힘들어요 =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예비역이 되어 복귀한 투수들이 많다. 문경찬도 그 중 한 명. 2015년 입단해 첫 시즌을 끝내고 상무로 입대했던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 가을 제대를 했다. 오랜만의 캠프라 의욕은 넘치지만 고된 스케줄과 캠프가 막바지로 가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문경찬은 “군 복무를 할 때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몸이 힘들다”며 웃었다.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 4년 80억에 삼성행



FA 포수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가 FA(자유계약선수) 포수 강민호(32)와 4년 총 80억원(계약금 40억원, 연봉 총 40억원)에 계약했다.

삼성에는 21일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강민호는 2004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올해까지 14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었다.

4년 전인 2013년 11월에는 생애 첫 FA 자격을 얻어 4년 75억원에 잔류 계약을 했다. 그만큼 롯데에 애정이 강했지만,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뒤에는 새 동지를 찾았다.

삼성에는 “리빌딩을 기조로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며,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해 중심을 잡아줄 주력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포지션의 중요도와 경험, 실력을 두루 갖춘 강민호를 영입하게 됐다”고 강민호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2011~2015. 5시즌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이 중 2011~2014시즌에는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정상에 섰던 삼성은 2016년과 2017년 9위에 그쳤다.

구단의 움직임이 ‘육성’쪽으로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진갑용 은퇴 후 ‘취약 포지션’이 된 포수는 경험이 필요한 자리다. 결국 삼성은 FA 시장에 나온 정상급 포수 강민호를 영입했다. 강민호는 롯데를 떠나는 미안함과 삼성에 입단하는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삼성과 계약을 마친 강민호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팀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 저의 미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다가온 삼성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신 롯데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삼성 팬들께도 박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미 골프여제들 자존심 대결

### 24일부터 경주서 박인빈비테이셔널

한국과 미국 여자프로골프에서 활약하는 톱스타 선수들이 국내에서 투어의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벌인다.

24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시 블루윈드 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빈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이 그 무대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 26명이 양 팀으로 나뉘 치르는 단체전이다.

LPGA 투어 대표로는 대회를 개최하는 박인빈을 비롯해 유소연, 김세영, 전인지, 허미정, 양희영, 이미림, 이미향, 김효주, 신지은, 지은희, 이정은(29), 최나연이 출전한다. 또 이에 맞서는 KLPGA 팀에는 이정은(21), 김지현(26), 오지현, 고진영, 김지현(26), 배선우, 장하나, 김자영, 김민선, 김지영, 이승현, 이다연, 최혜진이 속

해 있다. 대회 첫날인 24일에는 포블(두 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팀 점수로 삼는 방식) 6경기, 25일에는 포섬(두 명의 선수가 공 하나를 경기하는 방식) 6경기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싱글 매치플레이가 펼쳐진다.

이기면 1점, 비기면 0.5점을 받아 사흘간 점수 합계로 승패를 정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LPGA 투어 팀이 승리했다. 이긴 팀에 6억5000만원, 패한 쪽에는 3억5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출전 선수 가운데 고진영은 앞서 열린 두 차례 대회에 모두 나와 4승 2무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며 장나는 첫 대회에는 LPGA 투어 선수로 나왔고, 올해는 국내로 복귀해 KLPGA를 대표하게 됐다. /연합뉴스

## MLB ‘투구 20초 룰’ 추진

미국 메이저리그가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2018시즌부터 ‘투구 20초 룰’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ESPN은 21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투구 20초 룰에 관해 논의했다. 노조의 반대가 있지만, 사무국은 강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투구 20초 룰’은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이전 투구를 마친 후 20초 안에 다음 투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20초를 넘기면 투수는 볼 한 개를 헌납하는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야구가 인기를 유지하려면 경기 시간 단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올해부터 투수가 고의사구 의사를 표하면, 공을 던지지 않아도 타자가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규정을 만드는 등 경기 시간을 줄이고자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2015년부터 ‘20초 룰’을 시행했다. /연합뉴스